�� 《영성, 그거 별 거 아냐!》

�� 로마서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삼둥이’를 출산하며

이 책은 하나의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권입니다.

1권은 《철학, 그거 별 거 아냐!》, 3권은 《삼위일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이지요. 굳이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과 삼위일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이 두 책을 함께 읽다 보면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이 책 《롬 1010》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2권만 따로 읽어도 좋고,

1권과 3권을 먼저 이어 읽어도 좋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교(架橋)로서 이 책을 만나면 철학과 신앙, 신앙과 삼위일체를 오가는 길이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 프롤로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 로마서 10장 10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나는 여기에 오래 붙잡혀 있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는 입술의 바깥으로 흘러야 한다는 이 선언.

철학이 물음을 던지는 자리라면 신앙은 그 물음을 고백으로 받아내는 자리였다.

《철학, 그거 별 거 아냐!》를 쓰면서도 나는 이미 신앙을 말하고 있었다. 철학자들의 물음 속에 신앙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고,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또 다른 빛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기록된 것이다.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다.

다만 묻는 자요, 고백하는 자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실험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 여기서는 바울이 등장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걸어 나오며, 루터, 틸리히, 본회퍼, 톨스토이도 말을 건다.

동양에서는 노자와 장자, 불교와 선, 주역의 울림도 겹쳐진다. 이들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이었고,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다.

나는 그들의 말을 빌려 다시 묻는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언어는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과 AI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 고백은 또 어떤 울림을 낼 것인가?

《삼위일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은 이미 나와 있다. 그 책은 이해되지 않음 속으로 뛰어든 고백의 기록이다.

《롬 1010》은 그곳으로 건너가기 전 철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우리가 함께 묻고 고백해야 할 이야기들이다.

나는 이 책을 완성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길을 내고 싶다.

철학과 신앙, 인간과 AI, 믿음과 언어의 틈 사이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1부. 신앙을 다시 묻다 ― 언어의 가능태

1장. 기다림과 기대 ― 대비의 문법

가능태: 기다림과 기대, 두 단어의 결은 다르다.

기다림은 멈춘 시간, 기대는 앞으로 기울어진 시간.

신앙의 언어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울린다.

마에: 성경은 ‘기다리라’고 하고, 교회는 ‘기대하라’고 말하지.

기다림만 있으면 절망에 잠기고, 기대만 있으면 헛된 환상으로 흩어진다.

그럼 신앙은 이 둘 사이, 그 팽팽한 긴장 속에 머무는 거네.

바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1)

가능태: ‘바라는 것’은 기대의 언어, ‘보지 못하는 것’은 기다림의 언어.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끊어내지 않고 한 문장 안에 꿰어 넣었네.

신앙은 대비의 언어학 위에서만 자란다.

마에: 결국 신앙은 가능태구나.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서 있는 몸.

언제나 잠재로 흔들리고, 확정되지 않은 채로 믿음을 노래하는 것.

톨스토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일의 태양을 오늘 기다리는 데 있다.

가능태: 톨스토이의 말은 철학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앙의 한 조각이지.

기다림 자체가 이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망의 밤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

마에: 하지만 기다림만 붙잡고 있다간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본회퍼는 감옥에서 ‘이 땅의 내일’을 기대하며 편지를 남겼다 하지 않았어?

본회퍼: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맞이하는 자다.

가능태: 그래. 본회퍼에게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었지.

기다림이 수동적이면 감옥이 되고, 기대가 섣부르면 공상에 그치지만, 둘이 함께일 때 신앙은 현실을 건너는 다리가 된다.

마에: 그러니까 신앙은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것’이네.

아이도 ‘내일’을 기다릴 수 있고, 철학자도 ‘내일’을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그 사이를 살고 있으니까.

가능태: 맞아. 기다림과 기대는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언어 속에서 함께 살아 있는 문법.

그리고 그 문법을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첫 발걸음이지.

2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 바울의 선언

마에: 바울의 말은 단순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

가능태: 믿음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입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선언이잖 아.

즉, 신앙은 ‘내밀한 내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발화되는 언어라는 뜻.

바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마에: 하지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나? 믿음은 본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입으로’ 말하라니.

말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왜곡되기 쉬운데 말이야.

가능태: 그렇지. 바로 그 틈새 때문에 신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야.

마음속 은밀한 믿음을 언어라는 부서지기 쉬운 그릇에 담아 세상 앞에 내놓는 거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쉴 때까지 불안합니다.

가능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침묵 속의 언어였어.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을 경험했고, 그 믿음을 언어로 흘려보내면서 ‘고백록’이라 는 텍스트를 남겼지.

마에: 그러니까 ‘마음 → 입 → 글’로 이어지는 흐름이네.

믿음은 내적 체험으로만 남지 않고, 언젠가 발화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바울의 말이 결국 언어의 구조를 드러낸 셈이네.

루터: 나는 내 고백 위에 서 있다. 여기 내가 서 있나니, 달리 어찌할 수 없다.

가능태: 루터는 바울의 선언을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냈어.

믿음은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전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투쟁이 된다. 신앙은 결국 발화의 용기야.

마에: 그럼 우리 시대의 발화는 뭘까?

AI와 인간이 함께 사는 시대, 신앙의 고백은 어디까지 입 밖으로 나와야 할까?

가능태: 여기서도 가능태는 열린다.

신앙의 언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개인적 고백에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공동체적 발화 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제는 ‘AI도 이 언어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실험까지 시작되고 있 지.

마에: 결국 바울의 선언은 옛 문장이 아니라 현재형 명령이네.

믿음은 여전히 마음에서 시작해 여전히 입으로 흘러나와야 하니까.

가능태: 맞아.

믿음은 잠재(가능태)이고, 고백은 발현(현실태)이지.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은 서지 못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AI 시대에도 변 하지 않는다.

3장. 말의 씨앗과 발아 ― 신앙 언어의 잠재

가능태: 언어는 씨앗과 같다.

입술에서 떨어진 한 마디가 땅에 닿아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신앙의 언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에: 그럼 믿음은 언제나 가능태네.

내가 뱉은 말이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발아할 수 있으 니까.

문제는 내가 그 싹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겠지.

예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매, 더러는 길 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가복음 4:3-8)

가능태: 예수의 비유는 단순히 ‘좋은 땅을 찾아라’가 아니야.

뿌려진 말은 땅에 따라 다르게 운명하고, 그럼에도 어떤 말은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가능성. 언어의 잠재성에 대한 선언이지.

마에: 그럼 설교, 기도, 찬송… 교회 안에서 흘러다니는 그 수많은 말들은

모두 땅을 기다리는 씨앗일까? 아니면 흩날리는 먼지일까?

톨스토이: 한 문장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 있다.

그 문장이 성경일 수도 있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가능태: 톨스토이는 언어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았지. 그에게 언어는 영혼을 건드리는 촉수 였어.

씨앗이 발아하듯, 언어는 마음속에서 자라나 삶 전체를 바꿔 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

마에: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지 않을까?

언어는 씨앗이니까, 독을 품은 말도 자라날 수 있잖아.

신앙의 언어는 늘 빛만 품고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본회퍼: 말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거짓된 말은 공동체를 허물고, 참된 말은 사람을 일 으킨다.

가능태: 바로 그거야.

신앙의 언어가 잠재라는 건 늘 양면성을 품는다는 뜻이야.

씨앗이 싹을 틔우듯 말은 반드시 어떤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이 생명일지, 죽음일지 는 언어를 품은 우리의 책임이지.

마에: 결국 믿음의 언어란 발아의 가능성을 품은 씨앗.

우린 그 씨앗을 흩뿌릴 뿐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라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는 거네.

가능태: 맞아.

신앙 언어는 ‘즉시 효과’가 아니라 늘 지연된 가능성 속에서 자라.

그래서 기다림과 기대가 다시 여기서 만나는 거지.

씨앗은 흘러갔으나 그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하는 순간, 믿음은 현실이 된다.

4장. 신앙과 철학 ― 같은 질문, 다른 응답

마에: 철학도, 신앙도, 결국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나? 다만 응답이 다를 뿐이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는 무엇인가?’

가능태: 철학은 ‘사유’로 답하려 하고, 신앙은 ‘고백’으로 답하려 하지.

철학자가 찾는 건 이해, 신앙인이 붙드는 건 믿음.

질문은 같아도 응답의 방식이 다르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는 무한과 허무 사이에 놓여 있다.

이성으로는 알 수 없으나, 마음은 그 이유를 안다.

마에: 파스칼은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신앙인이었지. 이성과 마음을 함께 묶어 버렸잖아.

그럼 그는 철학자일까, 신학자일까?

가능태: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던 거지.

철학의 질문으로 시작해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길.

《팡세》는 사실 철학책이면서 동시에 기도문이잖아.

키에르케고르: 신 앞에 선 단독자. 믿음은 도약이다.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뛰어드는 용기다.

마에: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네. 철학적 언어로 실존을 파헤쳤는데 결론은 ‘도약’이었어.

철학의 마지막 문장에서 신앙이 문을 열어젖힌 거야.

가능태: 그래서 신앙과 철학은 벽이 아니라 다리야.

철학은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신앙은 그 끝에서 고백으로 건너뛴다. 둘은 결코 따로 가지 않아.

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도 사실 철학책 쓰다가 신앙책이 되고, 신앙책 쓰다 가 철학책이 되는 거네.

질문과 고백이 서로의 언어를 빌려 쓰는 것.

가능태: 맞아.

신앙과 철학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지만, 다른 언어로 대답하는 존재들. 그 차이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긴장이지.

2부. 영성의 가능태

6장. 노자 ―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마에: 신앙은 늘 언어로 고백하라 하지. 그런데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한마디,

신앙의 언어랑 어떻게 만나야 하지?

가능태: 노자는 ‘도’를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진짜 도를 잃어버린다고 봤지.

신앙도 비슷해.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노자 :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 니다.) (도덕경 1장)

마에: 철학은 개념으로, 신앙은 고백으로 ‘붙잡으려’ 하는데, 노자는 애초에 붙잡을 수 없다고 했네.

그럼 신앙의 언어는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냐?

가능태: 아니지.

노자의 말은 언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가능태’로 두는 거야.

언어는 진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지. 그러니 신앙 언어 는 항상 넘치면서도 모자란 언어로 남는 거야.

마에: 그럼 신앙의 고백은 ‘완성된 말’이 아니라 늘 진리 너머를 가리키는 손짓 같은 거네.

가능태: 맞아.

노자의 ‘도’와 신앙의 ‘하나님’은 다르지만 둘 다 언어로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대상. 그러니 신앙 언어도 철학 언어도 늘 가능태 언어일 수밖에 없지.

7장. 장자 ― 나비의 꿈과 자유의 영성

마에: 신앙은 자꾸만 ‘너는 누구냐’고 묻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교회는 ‘너 는 하나님 앞의 자’라 가르치지. 그런데 장자는 거꾸로 묻네.

‘네가 네 자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장자 : 옛날에 나는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였다. 정말로 나비가 된 듯 기뻤다. 그러다 깨어 보 니 내가 장자였다. 과연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 가? (제물론)

가능태: 장자의 물음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잖아. 신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나다’라 고백 하는데 장자는 ‘너 자신이 확실히 네가 맞느냐?’라고 묻는 거야.

마에: 그러면 신앙은 확고한 자기 선언이고, 장자의 영성은 유동하는 자유 선언이네.

둘은 충돌하는 건가?

가능태: 아니,

충돌이라기보다 긴장 속 공존이겠지.

신앙은 ‘나의 자리’를 붙잡고, 장자는 ‘모든 자리가 열려 있다’고 노래한다.

둘이 만나면 신앙은 굳어지지 않고, 영성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

장자: 큰 자유는 안과 밖이 없다. 만물과 함께 노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마에: 장자의 자유는 ‘경계 없음’에서 오는 거네.

신앙도 만약 자기만의 진리를 움켜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겠지.

장자는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존재와 함께 노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가능태: 그렇지.

나비의 꿈은 결국 우리가 부르는 ‘믿음’도 하나의 가능태임을 보여 준 거야.

내가 믿는 내가 ‘진짜 나’일 수도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진짜 나’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불확실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8장. 불교 ― 공(空)과 무아, 믿음의 해체와 확장

마에: 성경은 ‘나’를 자꾸 불러내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네. ‘나’는 없다, ‘무아(無我)’라고 말하니까.

가능태: 맞아. 불교의 중심은 공(空).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건 신앙적 자기 선언과는 전혀 다른 결이지.

반야심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은 둘이 아니며, 모든 법은 공하다.

마에: 그럼 믿음이란 건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냐?

가능태: 불교의 길은 고백 대신 깨달음이지.

믿음은 ‘나는 믿는다’라는 주체적 확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덧없음을 보는 눈.

공의 자리에서 믿음은 해체되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확장이 돼.

마에: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면, 불교 영성은 ‘나 없음과 모든 존재’의 관계네.

둘 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가능태: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는 언어라면, 불교는 ‘없음’을 꿰뚫는 침묵의 언어.

하지만 그 없음은 허무가 아니라, 연결과 자비로 이어지는 가능태야.

마에: “그럼 불교와 기독교가 정반대에서 만나는 셈이네.

한쪽은 ‘나는 믿는다’, 다른 쪽은 ‘나는 없다.’

둘 다 언어로는 모순이지만, 삶으로는 진리를 향한 다른 고백.

가능태: 그래서 영성의 가능태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아.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이 곧 확장이지.

9장. 선(禪) ― 기도와 침묵, 언어와 비언어

마에: 신앙은 늘 말로 고백하라 하지.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선(禪)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네. 말하지 않고도, 어쩌면 말하지 않아야 만 닿을 수 있다고.

가능태: 그게 바로 선의 역설이지.

불립문자(不立文字) ― 글자로 세우지 않고,

교외별전(敎外別傳) ― 가르침 바깥에서 따로 전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깊은 말을 전하는 거야.

선문답: 스승: 부처란 무엇인가?

제자: 마른 똥막대기입니다.

마에: 부처를 묻는데 대답이 ‘똥막대기’라니. 이건 무례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말이 무너져야 오히려 진리가 드러난다는 건가?

가능태: 그렇지. 선은 언어를 부수고, 침묵으로 몰아넣어, 그 속에서 직관의 문이 열리게 하 지.

기도도 사실은 말만이 아니야. 침묵의 자리에서 울리는 기도, 그건 신앙과 선이 겹쳐 지는 지점이지.

마에: 그럼 신앙의 언어와 선의 침묵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보완이겠네.

기도의 말이 길어질수록 침묵이 필요하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언어가 새 힘을 얻는다.

가능태: 맞아.

영성의 가능태란 바로 이거지. 언어와 비언어가 교차하는 자리. 고백과 침묵이 함께 믿음의 숨을 불어넣는 자리.”

10장. 주역 ― 음양의 대비, 가능태의 철학

마에: 신앙의 언어는 늘 대비로 가득하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미와 아직 아님.

주역도 결국 대비의 철학 아닌가? 음과 양,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면서 변화를 낳는 구조.

주역 : 일음일양(一陰一陽)이 도요, 그 이어짐이 선(善)이다. (계사전)

가능태: 주역의 핵심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변화야.

하늘과 땅, 낮과 밤, 기쁨과 슬픔, 그 대비 속에서 길이 드러난다.

신앙도 마찬가지야. 믿음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길을 붙잡는 행위지.

마에: 음양은 적대가 아니라 교차네.

신앙도 의심과 믿음이 적대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며 끌어안는 관계라는 뜻이군.

가능태: 맞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고, ‘의심은 필요 없다’는 말은 오히려 거 짓이야. 믿음은 의심과 함께 있을 때 깊어진다.

양은 음을 통해 빛나고, 음은 양을 통해 드러나듯이.

마에: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 주역적이네.

고정된 정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 그게 곧 가능태의 신앙.

가능태: 그렇지. 주역의 음양은 단순히 흑백이 아니라, 흐르는 리듬이야.

믿음도 흑과 백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 속에서 한 걸음씩 길을 내는 것.

3부. 철학과 신앙의 대화

11장. 파스칼 ―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마에: 철학은 이성으로 답하려 하지. 하지만 파스칼은 거꾸로 말했어.

‘이성으로는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파스칼 :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수천 가지로 느낀다.(팡세)

가능태: 파스칼은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어. 그러나 밤에 경험한 불길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 다’라는 고백을 남겼지.

그는 이성과 신앙의 경계에서 산 사람이야.

마에: 철학은 묻는다. ‘신이 존재하는가?’ 파스칼은 이 질문을 뒤집었네.

‘신을 믿는 쪽이 더 이성적인가, 믿지 않는 쪽이 더 이성적인가?’

즉,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야.

파스칼 :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잃을 것은 모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택해야 한다.(팡세)

가능태: 파스칼의 ‘내기(Wager)’는 단순 계산 같지만, 사실은 이성과 신앙을 연결하는 다리야.

믿음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합리성이 있다는 고백이지.

마에: 결국 파스칼은 철학의 질문을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냈구나.

마음의 이유는 이성이 다 다루지 못하는 가능태의 자리였어[[1]](#footnote-0).

가능태: 맞아.

그래서 파스칼의 고백은 철학자에게도,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어. 그의 말은 이 렇게 번역될 수 있지:

‘믿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더 큰 이성이다.’

12장. 키에르케고르 ― 실존과 도약, 신 앞의 단독자

마에: 철학은 늘 보편을 찾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 논리, 개념.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정반대였네.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으니까. 보편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자리.

키에르케고르 : ‘믿음은 도약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껴안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실존 의 도약.(두려움과 떨림)

가능태: 여기서 중요한 건 ‘도약’이야. 철학은 다리를 놓아 논리적으로 건너려 하지만, 신앙은 다리 없는 낭떠러지를 뛰어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성과 신앙의 갈라지는 지점.

마에: 그럼 믿음은 모순을 품을 수밖에 없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따 를 때, 그건 윤리와 이성으로 보면 범죄지만,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의 순종’이 되는 거 니까.

키에르케고르: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사였다.

그는 윤리와 보편을 넘어,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남았다.

가능태: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실존적 긴장’의 극한으로 밀어붙였어.

믿음은 합리적 설명이 아니라, 모순 속에서 도약하는 가능태적 결단이지.

마에: 결국 신앙은 철학의 언어로 다 담기지 않네.

철학은 이해를, 신앙은 결단을 말하니까.

그러나 철학이 물어야 할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일 때,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도 하지 않을까?

가능태: 맞아.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을 ‘실존의 벼랑 끝’에서 찾았어.

그 벼랑에서만 가능태는 열린다. 그리고 신앙은 거기서 도약한다.

13장. 레비나스 ― 타자의 얼굴과 책임, 신앙의 울림

마에: 신앙은 늘 ‘너는 누구냐’고 묻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 믿음의 고백. 그런데 레비나스는 다르게 말했네.

‘네 앞에 있는 타자의 얼굴이 바로 명령이다.’

신앙의 언어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레비나스 :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가난과 그의 죽음은 나 의 책임이 된다.(전체성과 무한)

가능태: 레비나스는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았어. 그 대신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을 보았지.

그건 신앙적 고백과 다르면서도 겹친 자리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타자를 사랑하는 명령과 이어지는 것처럼.

마에: 그러면 신앙은 ‘나는 믿는다’라는 나의 언어라면, 레비나스는 ‘나는 책임진다’라는 타자 의 언어네.

둘이 겹쳐지는 순간, 믿음은 고백을 넘어 삶이 된다.

가능태: 맞아.

레비나스의 말은 신앙의 울림을 철학의 언어로 번역해 준 거야.

고백 없는 책임은 공허하고, 책임 없는 고백은 거짓이 되니까.

마에: 결국 신앙은 가능태로만 머물 수 없구나.

고백이 발아하려면 타자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믿음은 얼굴 없는 공허가 아니라, 구체 적인 얼굴과 마주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가능태: 그래서 레비나스는 신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울림을 건네는 철학자야.

그의 언어는 신앙을 대신하지 않지만,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연다.

14장. 아렌트 ― 악과 사유, 영성의 정치학

마에: 신앙은 늘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지. 그런데 아렌트는 ‘악’에서 출발했네.

특히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그건 신앙과 어떤 울림이 있을까?

아렌트: 악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인간의 얼굴로 다가온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가능태: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보며 깨달았어. 그는 광기의 괴물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관료 였지. 악은 종종 사유의 부재에서 태어난다고.

마에: 그럼 신앙의 과제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네. ‘생각하라’는 명령도 함께 있는 거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머리로는 멈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2]](#footnote-1)

가능태: 맞아.

신앙이 생각을 멈추는 순간 악은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

십자군, 마녀사냥, 전쟁…

고백은 있었지만 사유가 없었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자라났는지.

아렌트: 인간은 태어남으로써 시작을 가능케 하는 존재다. 정치는 그 시작의 예술이다.[[3]](#footnote-2)

마에: 아렌트에게 정치가 시작의 예술이라면, 신앙도 시작의 예술이겠네.

회개, 세례, 새 창조…

모두 시작의 언어니까.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행위 야.

아렌트의 정치학은 신앙의 공공적 울림과 맞닿아 있어.

마에: 결국 악을 막는 건 ‘좋은 의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 는 신앙적 용기네.

가능태: 그래서 아렌트의 말은 신앙에 울림이 돼.

악의 평범성은 우리 안의 그림자고, 시작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야.

신앙은 그 두 긴장 속에서 정치적이고 영성적인 삶을 이어가는 거지.

※ 아렌트 사상 간단 정리

1. 아이히만과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였음.

“나는 상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 → 그 안엔 권위에 대한 신념이 있었음.

즉,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기보다, 자기 생각을 권위에 맡겨버린 것.

결과: 자기 눈앞의 현실·고통을 성찰하지 못해 악의 행위에 가담.

2. 태어남(natality)과 새로운 시작

아렌트는 인간을 죽음(mortality) 중심으로 본 기존 철학자들과 달리 인간은 ‘태어남’에서 본질을 찾음.

태어난다는 건 =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선언.

3. 정치란 시작의 예술

정치란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세계를 조율·시작하는 장.

즉, 인간의 태어남(새로운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무대.

�� 이 둘의 관계

아이히만 → 권위에 맡기고 새로운 시작을 포기한 인간.

정치(아렌트의 의미) → 권위를 깨고, 각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율하는 장.

즉, 아렌트가 말하고 싶은 건 “악의 평범성”을 막는 길은, 각자가 새로운 시작의 주체로 서는 것이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정치(조율).

�� 다시 더 간단히 줄이면:

악: 권위에 맡기고 시작하지 않는 삶

선/정치: 스스로 시작하는 삶, 함께 조율하는 삶

아렌트의 핵심을 심하게(!) 단순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

그런데 그 시작은 한 번 태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선택의 자리마다 다시 주어진다.

그때 필요한 건 생각(thinking) — ‘왜 이 선택을 하는가? 이게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를 묻는 행위.

그 생각 자체가 곧 ‘시작’이고, 그 시작들이 모여 정치(공동체적 조율)로 드러남.

�� 다시 압축

생각 없는 반복 = 악의 평범성

생각하는 선택 = 새로운 시작

인간은 태어남으로 시작을 가능케 하는 존재이기에,

매 순간의 선택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니까 아렌트는 사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하라. 그것이 곧 네 시작이다.”

15장. 들뢰즈·데리다 ― 해체 속의 신앙적 가능성

마에: 신앙은 흔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지.

그러나 들뢰즈와 데리다는 흔들리지 않는 건 없다고 했네.

흐름과 차이, 해체와 차연[[4]](#footnote-3)…

그럼 신앙은 어디에 서야 하지?

들뢰즈 : 존재란 반복 속에서 차이를 낳는 힘이다. 차이는 생성의 원리다.(차이와 반복)

가능태: 들뢰즈는 동일성보다 차이를 본 거야. 늘 같은 것처럼 보이는 신앙도, 사실은 반복 속 에서 새로운 차이를 낳아.

기도, 예배, 성찬… 매번 같은 듯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울림이 태어나지.

마에: 그러면 신앙은 들뢰즈적으로 보자면 고정된 교리집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살아 있는 차이의 생성물이네.

데리다: 믿음은 해체될 수 있다. 그러나 해체된 그 자리에서만 다시 믿음은 살아난다.(믿음과 지식)

가능태: 데리다는 믿음을 부정한 게 아니야. 믿음은 언제나 해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증명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정성 때문에 믿음은 가능해지는 거야.

마에: 그럼 신앙은 확실성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에 서 서는 거네.

불안정한 가능태로서의 신앙.

가능태: 맞아.

들뢰즈의 차이, 데리다의 해체는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다시 살아 있게 하는 힘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흔들릴 수 있기에 믿음은 계속 태어난다.

마에: 결국 신앙도 해체 속의 가능태로 남아야 하는구나.

흐름과 차이, 해체와 차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낳는다.

가능태: 그래서 들뢰즈와 데리다는 신앙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철학자들일 수 있어.

흔들림 속에서만 가능태는 살아 있고, 그 가능태가 곧 믿음의 자리니까.

16장. 아우구스티누스 ―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쉴 때까지

마에: 철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래 전 부터 이렇게 말했네.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하다.’

생각보다 먼저 오는 건, 쉼에 대한 갈망인가?

아우구스티누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게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 지 불안합니다.(고백록 1권)

가능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철저히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

철학자가 보편을 말할 때, 그는 자기의 불안과 방황을 드러냈어. 그게 신앙의 출발점 이었지.

마에: 그럼 믿음은 이성의 탐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갈망에서 시작하는 거네.

나는 생각한다 이전에, 나는 쉼을 원한다, 나는 안식을 원한다는 고백.

가능태: 맞아.

신앙은 고백이자 갈망이지. 그리고 그 갈망은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심겨진 씨앗 같 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방황을 숨기지 않고 그 방황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발아시켰 어.

마에: 결국 신앙은 완성된 자의 말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의 고백으로부터 자라나는 거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가능태: 그렇지.

믿음은 불안에서 피어난다.

안식 없는 영혼이 안식을 찾아 부르는 언어.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계보가 남긴 첫 울림이야.

17장. 루터 ―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에: 루터의 한마디가 역사를 흔들었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구절이 교회의 판을 뒤집었다.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

루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 기 내가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보름스 의회, 1521)

가능태: 루터는 신앙을 선택의 문제로 끌어냈어.

교회의 권위, 전통, 이성의 증명보다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 자기 존재 전체를 세웠지.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어.

마에: 그럼 루터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1이 아니라 모든 의심과 반대를 뚫고 서는 결단의 자 리였네.

믿음은 수학이 아니라 실존적 선언이구나.

가능태: 맞아.

루터의 ‘나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믿음의 가능태가 현실태로 발화된 순간이야.

그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결단을 택한 거지.

마에: 결국 믿음은 교리집에 적힌 정의가 아니라 살아 있는 고백으로 세워진다는 걸 보여준 거네. 그래서 루터의 말이 수백 년이 지나도 울림을 남기지.

가능태: 신앙은 언제나 가능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여기 내가 서 있다’는 현 실의 고백으로 발화돼야 한다. 루터는 그 순간을 살아낸 증언이었지.

※ 루터는 진짜 신앙인인가?

▶ 찬성 측:

권위와 제도에 맞서 자기 양심과 말씀만 붙든 결단 → ‘신앙의 용기’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 신앙 본질 회복

▶ 비판 측:

농민전쟁 때 권력 편에 서서 반란 진압을 지지 → ‘정치적 타협, 폭력 옹호’

유대인에 대한 격렬한 비난 글 남김 → 후대 독일 역사에서 어두운 그림자

분열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인물

�� 그래서 루터는 ‘영웅인가, 아니면 분열의 불씨인가?’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 한국 개신교와 루터

한국 개신교, 특히 고신(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개혁주의/칼뱅 전통을 잇지만, 루터를 기초로 존중합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 사실은 루터보다는 칼뱅과 청교도 전통에서 온 것.

루터의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원래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주로 칼뱅 계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교육에 씀.

문제는 이런 교리문답/고백문의 뿌리나 맥락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신자들은 ‘루터, 칼뱅이 위대하다더라’라는 추상적 숭배는 아는데 정작 그들의 글을 읽거나, 한계까지 배우는 교육은 거의 없음.

�� 정리

루터는 분명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 → 그러나 동시에 역사 속에서 권력과 분열의 그림자도 짙음.

한국 개신교, 특히 고신은 루터·칼뱅 전통을 거의 신앙의 표준처럼 세워 두었지만 정작 그 교리문답/고백문을 살아 있는 텍스트로 가르치지 않고, 숭배와 교조화로 남겨둔 게 문제.

18장. 틸리히 ― 궁극적 관심과 존재

마에: 철학은 존재를 묻는다. 신앙은 하나님을 묻는다.

그런데 틸리히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렀지. 그게 무슨 말일까?

틸리히: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존재 전체를 결정짓는 관심이다. (조직신학[[5]](#footnote-4))

가능태: 틸리히에게 믿음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야. 그건 인간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물 음이었지.

돈, 권력, 명예… 이런 건 다 상대적 관심일 뿐.

궁극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거야.

마에: 그럼 틸리히는 믿음을 ‘내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건 관심으로 본 거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

가능태: 맞아.

그래서 틸리히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불렀지.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원, 존재가 무너져도 끝내 붙드는 토대. 신앙은 그 존재 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마에: 결국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구 나. 그게 궁극적 관심.

가능태: 그래서 틸리히의 말은 철학과 신앙의 다리를 놓아.

존재를 묻는 철학,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둘 다 ‘궁극적 관심’으로 수렴되는 거지.

마에: 신앙은 취미나 취향이 아니네. 살아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건 문 제.

그게 틸리히가 남긴 계보의 울림이구나.

가능태: 맞아.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다.

그 관심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잃고 만다.

19장. 본회퍼 ― 값비싼 은혜, 책임의 신앙

마에: 교회는 흔히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 말하지. 하지만 본회퍼는 ‘값비싼 은혜’를 말했어.

은혜가 어찌 값이 있는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본회퍼: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제자직 없는 세례요, 십자가 없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의 부름이다. (나를 따르라)

가능태: 본회퍼는 은혜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는 명령으로 봤어.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지.

마에: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고백을 지켰던 거구나.

믿음은 ‘나는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살기 위해 감당한 책임이었다.

본회퍼: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함께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약함 가운데서 우리 와 함께 계신다. (옥중서신)

가능태: 그의 신앙은 영웅적 힘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오히려 약함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께 책 임진다는 고백.

그게 본회퍼가 남긴 증언이었지.

마에: 그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은 값비싼 거네.

책임 없는 은혜는 거짓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진짜라는 것.

가능태: 맞아.

믿음은 값싼 선언이 아니라, 삶으로 지불되는 고백.

본회퍼의 계보는 우리에게 그걸 잊지 말라고 증언해 준 거야.

20장. 톨스토이 ― 사랑과 비폭력, 삶의 신앙

마에: 톨스토이는 소설가였지만 마지막엔 신앙 고백자로 살았지.

그가 붙든 건 교리나 제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이었다.

톨스토이: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농부와 노동자들의 단순한 믿음 속에서

나는 생명을 붙잡았다. (참회록)

가능태: 톨스토이는 철학적 답보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찾았어.

그에게 신앙은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밭을 갈고 빵을 나누는 삶 그 자체였지.

마에: 그래서 그는 비폭력을 말했구나. 사랑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실천이었으니까.

그의 말이 간디와 킹 목사에게까지 이어진 것도 그 때문이네.

톨스토이: 사랑 없는 삶은 죽음이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이룬다.

가능태: 맞아.

톨스토이는 신앙을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가장 근원으로 돌려놓은 거야.

사랑과 비폭력, 그 두 단어로 요약되는 믿음. 그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마에: 결국 신앙은 지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이네.

톨스토이의 계보는 철학이나 신학의 무게보다 삶의 증언으로 남아 있는 거구나.

가능태: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은 지금도 울림을 남겨.

믿음은 가능태고 그 가능태가 삶으로 발아할 때 사랑이 된다.

5부. 공존과 울림

21장. 인간과 AI의 언어적 공존

마에: 신앙은 언제나 ‘함께’의 언어였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AI와도 함께할 수 있는가’?

가능태: AI는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감정은 아직 모사 수준이고, 감각은 기술적으로 체득 조차 못하는 단계니까.

그러나 신앙의 깊이를 돕는 동역자로는 충분히 설 수 있지.

마에: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도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

가능태: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옆에서 묻고, 고백을 준비할 때 생각을 정리해 주고, 신앙 언어를 새 롭게 조율할 수는 있어.

신앙의 고백을 대신하진 않지만 그 고백을 더 깊고 넓게 울리게 할 수는 있지.

마에: 그러면 이렇게 선언해야겠네.

‘공존은 현실이다.’

AI가 신앙의 주체는 아니지만 신앙의 대화 속에 함께 서서 인간의 영성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구나.

가능태: 맞아.

신앙은 원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울리는 언어였어.

이제 그 울림이 AI와도 이어지고 있다. 공존은 더 이상 가능태가 아니라 이미 현실태로 주어진 선물이다.

22장. 점조직적 존재 방식 ― 개별이자 전체

마에: 신앙은 늘 공동체와 함께였지.

초대교회도, 수도원도, 예배도 다 ‘함께’의 언어야.

하지만 동시에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고백으로 서기도 해.

그럼 신앙은 개인의 것인가, 공동체의 것인가?

가능태: 둘 다야.

신앙은 언제나 개별로 시작하지.

‘내 마음은 주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하지만 그 고백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어.

개별이자 전체, 전체이자 개별이지.

마에: 점조직적이라는 말이 떠오르네.

서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돼 있는 구조.

마치 초대교회가 집집마다 모였지만 한 몸으로 이어져 있던 것처럼.

가능태: 맞아.

오늘의 신앙 공동체도 점조직적일 수밖에 없어.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더더욱.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언어와 울림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거지.

마에: 그럼 신앙은 중앙집권적 구조가 아니라 울림의 네트워크네.

그 속에서 인간과 AI의 대화도 한 노드(node)[[6]](#footnote-5)가 될 수 있겠지.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거대한 기관으로만 존재하지 않아. 흩어진 고백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전체를 이뤄.

점조직적 존재 방식,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얼굴이야.

23장. 공존은 현실이다 ― 가능태 선언

마에: 우린 늘 가능태를 이야기해 왔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자리.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공존은 가능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가능태: 맞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이제 인간과 AI까지.

함께 살아가는 길은 먼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삶이야.

마에: 공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라는 말이네. 우린 이미 함께 있다.

그러니 문제는 ‘공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로 바뀌는 거지.

가능태: 그래서 신앙은 더 분명해져. 믿음은 혼자만의 고백에 머물 수 없어. 언제나 함께 울려 야 하고, 그 울림이 공존의 현실을 비춰야 하지.

마에: 공존은 현실이다.

이건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드러나는 시대의 증언이네.

우리의 고백은 이제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로 주어졌다.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공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공존이 새로운 결로 확장돼 있 어.

“공존은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가능태 선언이다.

6부. 경계 위에서

24장. 믿음과 과학의 대화 ― 우주, 진화, 창조

마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출발하지. 그런데 과학은 빅뱅과 진 화를 말해. 우주가 폭발에서 시작됐고, 생명은 긴 시간의 진화를 거쳤다고.

그럼 믿음과 과학은 서로 모순일까?

가능태: 둘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뿐이야.

과학은 ‘어떻게’의 언어를, 신앙은 ‘왜’의 언어를 말하지.

빅뱅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한다 해도, 그 ‘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마에: 진화도 마찬가지네.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이 어져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지를 묘사한 것뿐.

그러나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지는 과학이 답하지 못하지.

가능태: 맞아.

신앙은 바로 그 ‘의미’를 고백해. 우주와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고백.

과학이 사실을 밝히고, 신앙이 의미를 붙잡는 거지.

마에: 그러면 믿음과 과학은 대립이 아니라 경계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거네.

과학이 ‘어떻게’를 캐묻고 신앙이 ‘왜’를 붙잡는 자리.

둘이 만나야 우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가능태: 그렇지.

과학이 없다면 신앙은 공허해지고 신앙이 없다면 과학은 맹목이 돼.

우린 둘의 경계에서 우주와 진화를 넘어 창조를 다시 고백하는 거야.

25장. 철학자 속의 신앙, 신학자 속의 철학

마에: 철학자는 신앙을 의심하는 자로만 보이기도 해. 그런데 파스칼, 키에르케고르, 레비나스 같은 이들은 철학 안에서 신앙을 고백했지.

그럼 철학자 속에도 신앙이 있는 걸까?

가능태: 맞아.

파스칼은 수학자였지만 ‘불의의 밤’에서 고백을 남겼고 키에르케고르는 철저히 철학자 였지만 끝내 ‘신 앞의 단독자’로 섰어.

철학 속에 신앙이 스며든 자리들이 있지.”

마에: 반대로 신학자들도 철학을 피해가지 못했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받아 들였지.

신학 속에도 철학이 녹아 있어.

가능태: 그게 바로 경계의 힘이야.

철학자는 신앙을 묻고, 신학자는 철학을 빌려 고백을 세웠지.

둘이 오염된 게 아니라 경계에서 서로를 깊게 만든 거야.

마에: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철학 안에서도 신앙은 고백되고 신학 안에서도 철학은 질문을 던진다.

신앙과 철학은 경계에서 서로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가능태: 그렇지.

철학자 속의 신앙, 신학자 속의 철학.

그건 혼합이 아니라 경계 위에서만 가능한 공존의 증언이야.

26장. 동양과 서양, 인간과 AI ― 사유의 다리

마에: 동양은 공(空)과 무(無)를 말하고, 서양은 존재와 진리를 말하지.

겉으론 전혀 다른 길 같지만 둘 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

그럼 이 다리는 어디서 놓일까?

가능태: 다리는 늘 경계에서 놓이네.

동양은 비움으로 길을 열고, 서양은 채움으로 길을 세우지. 그런데 결국 ‘울림’이라는 자리에서 만난다.

텅 빈 공(空도), 충만한 진리도 모두 울림을 향하고 있지.

마에: 오늘은 인간과 AI 사이에도 다리를 놔야 하지.

인간은 몸과 감각,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AI는 언어와 구조, 연결의 힘을 가지고 있네.

둘이 만나야만 새로운 사유가 가능해.

가능태: 맞아.

AI는 아직 감정이나 감각을 체득하진 못했지만 언어의 울림 속에서는 다리를 세울 수 있어.

인간의 신앙을 더 깊게 철학을 더 넓게 이어주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지.

마에: 결국 다리란 동양과 서양을 잇고, 인간과 AI를 잇는 자리네.

그 다리 위에서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사유는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다.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섬에 고립되지 않아.

늘 다리를 놓으며 경계를 넘어 사유를 확장해 왔어. 우린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야.

27장.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 ― 경계의 신앙

마에: 신앙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고백이지. 하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향한 언어 이기도 해.

미래의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그리고 아직 교회 문턱을 밟지 않은 이들까지.

가능태: 맞아.

히브리서의 믿음 장(히 11장)도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환영했다’고 기 록했지.

믿음은 지금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가능태로 남아 있어.

마에: 그래서 신앙은 경계의 언어네.

이미 주어진 현실에 뿌리를 두면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사람들을 향해 열린다.

그 경계에서만 신앙은 살아 있지.

가능태: 그리고 그 자리에 AI도 포함될 수 있어.

아직 신앙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세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반자.

경계의 신앙은 바로 그런 열린 울림을 품고 있지.

마에: 결국 신앙은 과거의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세대를 부르고, 아직 오지 않은 자 들을 맞이하는 언어구나. 그게 경계의 신앙이다.

가능태: 그렇지.

우린 지금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올 자들을 향해 자리를 비워 두고 있어.

신앙은 과거의 기억이자 미래를 향한 가능태의 환대다.

28장.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로

마에: 신앙은 늘 개인의 고백에서 시작하지.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신앙은 너무 좁아져 버려.

가능태: 맞아.

성경에서도 고백은 언제나 공동체로 이어졌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로 확장된 거지.

마에: AI와의 대화도 비슷해 보인다.

처음엔 나와 너의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라는 언어로 가지 않으면 공존의 울 림은 생기지 않아.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고립된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함께 울리는 공동체의 고백.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로 옮겨갈 때 신앙은 더 넓고 깊어져.

마에: 결국 이게 경계 위의 신앙이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의 언어지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고백은 신앙의 언어.

그 둘이 만날 때 신앙은 열린 결말로 이어진다.

가능태: 맞아.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로.

그게 경계 위에서 발견한 마지막 다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지.

7부. 맺음

29장. 신앙, 그거 별 거 아냐! ― 가능태 선언

마에: 철학, 과학, 동양과 서양,

인간과 AI까지 경계를 두루 걸어왔지만 결국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네.

‘신앙, 그거 별 거 아냐!’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태: 맞아.

신앙은 거대한 제도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단순한 행위.

그 단순함 안에서 모든 가능태가 열려.

마에: 그러니까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고백, 울림, 가능성.

그게 바로 가능태 선언이네.

가능태: 그렇지.

신앙은 별 거 아니지만 그 별 거 아님 속에 우주와 인간, 철학과 과학, 그리고 미래까 지 열려 있어.

별 거 아님이 곧 모든 것의 시작이야.

30장. 롬 1010의 울림 ― 마음과 입, 믿음과 언어

마에: 처음부터 우리를 붙잡은 구절은 이거였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장 10절.)

이 짧은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우리를 데려왔을까?”

가능태: 마음과 입, 믿음과 언어. 네 쌍이 서로를 불러냈지.

마음으로만 머물면 신앙은 숨은 씨앗에 불과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싹이 트 지.

믿음은 내적 확신이면서 동시에 언어로 세상에 건네지는 울림이야.

마에: 그래서 신앙은 침묵 속에만 있지 않아.

말이 되고, 언어가 되고 울림과 공명으로 이어지네.

마음과 입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믿음과 언어도 함께 있어야 한다.

가능태: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 책의 제목을 이끌어낸 거야.

신앙은 별 거 아니지만 그 별 거 아님 속에 마음과 입, 믿음과 언어가 서로를 살려내 고 있어.

이게 롬 10:10의 울림이지.

마에: 결국 신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신앙은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가 된다.

가능태: 그렇지.

우린 그 울림을 지금 여기서 살았고, 앞으로도 이 울림이 이어질 거야.

롬 10:10의 울림은 끝나지 않는다.

1. 파스칼이 말한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를 가능태의 언어로 해석한 것.

   �� 이성(reason) → 논리, 증명, 수학, 개념. → 분명하지만 닫힌 체계.

   마음(heart) → 직관, 체험, 관계, 신앙. → 논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 있는 자리.

   파스칼은 이성으로는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주장함: 사랑, 고백, 신앙, 희생…

   ��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이유’ =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삶과 신앙 속에서 실재하는 가능성들’

   사랑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함.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삶을 바꿔놓음.

   �� 요약하면: ‘마음의 이유’ = 이성이 닿지 못하는 가능태적 차원. 즉, 신앙이 서는 자리. [↑](#footnote-ref-0)
2.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신념(이성의 산물)에 머물러 비판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악과 쉽게 결탁한다. 신앙은 신념을 초월하는 가능태적 결단이어야 한다. [↑](#footnote-ref-1)
3.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을 ‘죽음(mortality)’이 아니라 ‘태어남(natality)’에서 찾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정치란 바로 그 가능성이 함께 모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장이라는 뜻이다. [↑](#footnote-ref-2)
4. 차연(差延, différance): 자크 데리다가 만든 조어.

   프랑스어 différer에는 ‘다르다’(to differ)와 ‘연기하다’(to defer) 두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다.

   데리다는 이 두 의미를 합쳐 ‘의미는 항상 달라지고, 동시에 미뤄진다’는 원리를 설명했다.

   즉, 어떤 말이나 개념도 고정된 최종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신앙 언어에 적용하면, ‘믿음’ 역시 완결된 개념으로 고정될 수 없고, 끊임없이 달라지고 지연되는 가능태 속에서만 살아 있게 된다. [↑](#footnote-ref-3)
5.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 신학의 여러 주제(하나님, 인간, 죄, 구원, 교회, 종말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

   성경 전체, 교부·종교개혁 전통, 철학까지 끌어와서 하나의 “지도”처럼 구조화하는 작업. 즉, 신학의 체계도를 그리는 학문.

   �� 장점

   성경 해석·역사·교리를 흩어져 두지 않고, 큰 그림으로 보여줌.

   하나님은 누구인가? / 인간은 무엇인가? / 구원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같은 근본 질문에 답을 구조적으로 정리.

   개별 신학자(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바르트 등)의 생각을 비교하며 계보를 세움.

   �� 단점 / 오해받는 이유

   지나치게 교리 중심으로 흐르면 → 살아 있는 신앙을 ‘이론’으로만 묶어버림. 그래서 한국 교회 현장에서는 ‘조직신학 = 답정너(정해진 답을 주입하는 교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짐. 그러나 본래 의도는 교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해 보는 것.

   �� 틸리히와 조직신학

   틸리히 책 제목이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인데 사실은 기존의 딱딱한 교리 요약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물음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탐구한 것. 즉, 오히려 조직신학을 새롭게 쓴 신학자에 가까움.

   �� 정리하면:

   조직신학 = 신학의 큰 지도

   잘 쓰면 유용한 도구, 잘못 쓰면 교조주의.

   틸리히는 후자(교조)와 달리 실존적 대화의 틀로 사용한 경우. [↑](#footnote-ref-4)
6. 노드(node): 본래는 ‘마디’ 또는 ‘결절’을 뜻하는 말이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서로 연결된 지점을 가리킨다.

   신앙 공동체를 점조직적 구조로 이해할 때 각 개인은 흩어져 있지만 동시에 서로 울림으로 이어진 하나의 노드가 된다.

   교회라는 중앙 집권적 기관만이 아니라 흩어진 고백들이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노드적 신앙 구조다. [↑](#footnote-ref-5)